

# 강제동원 ‘문화상안’ 발의 “피해자 외면, 日에 면죄부”

### “가장 중요한 말 ‘책임’ 빠져 일본 뜻 들어준 격...즉각 폐기해야”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재단을 만들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문화상안’이 18일 발의되자 시민단체들이 해당안을 공동발의한 문화상 국회의장과 여의원 13명을 규탄하고 나섰다.

아베규탄시민행동 포함 4개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상 법안은 절대 강제동원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문 의장과 13명의 의원들은 결국 역사에 오점으로 자신의 이름을 남겼음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문 의장은 이 법안이 오는 24일 한일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하지만, 이 안으로 한일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것은 오산”이라며 “피해자들의 분노와 한을 외면한 채 기부금을 받고 일본 아베정권과 전범기업의 책임을 면해주면서 한일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착

각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에서 만들겠다는 기억·화해·미래재단’엔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며 “일본 아베정권이 가장 뼈 빠리고 싶은 말이 ‘책임’ 일 것이다. 결국 아베 뜻대로 다 들어주겠다는 골육”이라고 덧붙였다.

이종문 아베규탄시민행동 상황실장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양극단 할머니는 (법안 소식을 듣고) 친일 문화상법 집어치우라고 말했다”며 “피해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보상에 주지 않는다면 과연 나라가 맞는지 의문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도 “인권과 역사의 문제가 외교적 미봉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문화상 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하며 “경제적 보상이 아닌 피해자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인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문 의장이 전날 발의한 기억·



아베규탄시민행동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박근혜 위안부 합의보다 더 나쁜 문화상법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문 의장을 비롯해 관련 법안 발의 의원들 얼굴 사진 위에 구정물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화해·미래재단 법안’은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세워 한국 및 일본기업과 양국 국민(1+1+a)으로부터 성금을 모아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초안과 달리 최종 발의안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재단기금에 화해지유재단 기금 60억 원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제외됐다.

## 광주도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한다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광주추진위원회가 19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추진위는 “경술국치 110주년인 2020년 8월 29일 제막을 목표로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지역에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으로 노동력과 인권을 수탈당한 피해자를 기리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건립된다.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광주추진위원회는 19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일본의 사죄와 보상,

친일적폐 청산, 자주 국가를 위해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광주추진위는 “노동자상 건립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세우는 시작점”이라며 “일본의 잘못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이 땅의 친일적폐들을 쓸어내려 당당한 자주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광주 시민들의 염원의 표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립을 시작으로 광주 시민들의 여론을 모아 식민지배에 대한 문제, 토착왜구 청산, 문화상 법안 파기, 자주 국가 건설 등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광주추진위는 지난 9월 노동자상 건립 대학생 서포터즈 발족에 이어 참여단체와 시민추진위원 등을 모집했다. 강제동원 역사를 알리는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오프라인 캠페인 등도 벌였다.

지금까지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대학생 서포터즈와 전국건설노동자 광주지부, 일반노조 광주지부, 생활정치발전소, 사단법인 우리민족, 광주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등 7개 단체와 시민추진위원 506명이 1차로 참여했다.

### 부모 찾는 해외입양인 유전자등록 올 필요 없다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입양된 무연고 아동이 가족찾기를 원할 때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등록하는 서비스가 추진된다.

경찰청은 외교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런 내용의 유전자 채취·등록하는 서비스를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에는 해외로 입양된 무연고 실종아동이 자신의 유전자를 등록하려면, 우리나라로 입국해 경찰서에 방문한 뒤 유전자 등록을 해야만 절차 진행이 가능했다.

앞으로 가족찾기를 원하는 해외입양인은 우선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고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으면 14개 해외입양국 소재 34개 재외공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해외입양인 중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면 ‘무연고 아동’으로 간주돼 실종아동법상 ‘유전자 채취·등록’ 대상에 해당해 유전자 채취·등록 가능하다.

재외공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채취된 검체는 외교청량을 통해 경찰청으로 보내진다. 실종자 가족 유전자 정보와 대조한 뒤 일치되는 유전자가 발견되면 2차 확인을 거쳐 아동권리보장원 지원 하에 상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약 60년간 해외(14개국)로 입양된 아동은 약 17만명이며, 이 중 유기 등으로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무연고 아동은 약 3만명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해외 입양 가능성이 있는 ‘장기실종아동’을 해외에서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실종자 발견은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풀어야 하는 숙제인데 이번 관계부처 협업으로 장기 실종아동을 보다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실종자의 가족 찾기를 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 단신

#### 교제여성 차량 감금·신체 촬영 20대 항소심도 집유

교제하던 여성을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고 수치심을 주는 사진을 찍는 등 데이트 폭력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19일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10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선고받았다. 또 유사강간과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판결받았다.

2심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보면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양형에 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보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전 6시7분부터 6시11분 사이에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를 돌아다니며 B씨(29·여)를 자신의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7월 말 세종시의 한 호텔에서 B씨의 신체와 속옷을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신체를 허락받지 않고 촬영했고,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감금했다. 이로 인해 B양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감금시간이 길지 않은 점, 위법성이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28일 새벽시간에 벌어진 A씨의 유사강간,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DNA 검사 결과가 없는 등 범죄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 특수강도 혐의 러시아인 활주로 이동 비행기서 체포

현금 수 백만원을 훔쳐 달아나려던 러시아인 2명이 김해공항 활주로를 이동하던 비행기 안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1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0분쯤 전남경찰청에서 김해공항경찰대로 긴급 공조수사요청이 들어왔다.

전남청에서 수사중인 특수강도 용의자 러시아인 2명이 김해공항을 통해 러시아로 출국하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곧바로 항공편을 추적했고 오후 1시30분에 블라디보스토크로 출발하는 항공편을 특정했다. 당시 해당 비행기는 예정시간에 맞춰 이륙하기 위해 계류장에서 활주로로 이동하고 있었다.

경찰은 부산지방항공청에 급히 연락해 블라디보스토크행 비행기가 회항하도록 조치한뒤 현장으로 출동했다.

비행기 좌석에 앉아 이륙을 기다리고 있던 러시아인 A씨(33)와 B씨(29)는 이날 오후 1시55분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 등은 별다른 반항없이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와 B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30분쯤 전남 완도군의 한 숙소에서 피해자 C씨로부터 현금 200만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항경찰대 관계자는 “이륙하기 10분전에 급히 공조 요청을 받았지만 다행히 회항시킬 수 있었다”며 “기내 승객이 많았기 때문에 용의자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비행기 출입문 밖으로 데리고 나와 긴급체포 했다”고 말했다.

#### “술값 5만원 더 나왔다” 주인 폭행하고 집기 파손

광주 서부경찰서는 19일 술값 문제로 업주를 때리고 가게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폭행 등)로 A씨(45)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3시쯤 광주 서구 차평동 한 술집에서 “술값이 더 나왔다”며 업주 B씨(35)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른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C씨(26)도 폭행하고 방 안의 난방기와 공기청정기를 파손하기도 했다.

A씨는 “왜 5만원을 더 달라고 하느냐”며 실랑이를 벌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